



류현진(30·LA 다저스)이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디저트디비전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 디자인드백스와의 홈경기에 선발등판, 호투를 펼치고 있다.

류현진, 내일 시즌 6승 도전

샌프란시스코전 선발등판… 선발로테이션 살아남기 위해 호투 절실

류현진(30·LA 다저스)이 12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등판한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8일(한국시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샌프란시스코 원정 3연전 까지 6인 선발로테이션을 가능하다고 전했다.

로버츠 감독은 당초 5인 선발로테이션으로 바꿀 것으로 계획했지만, 한주 더 지켜보기로 했다.

류현진과 마에다 겐타 등 선발진 중

한 명을 불펜으로 보내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로테이션대로면 샌프란시스코 원정 3연전에 류현진, 마에다, 클레이튼 커쇼가 선발등판한다.

류현진은 12일 오전 11시 15분 샌프란시스코의 AT&T파크 미운드에선다. 선발로테이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호투가 절실히하다.

류현진의 올해 성적은 5승7패 평균자책점 3.59이다.

승문이 따르지 않아 많은 승수를 올

려지는 못했지만, 2년 공백을 깨고 재기여 성공했다는 평가다.

후반기 성적은 더욱 좋다.

8경기(45이닝)에 등판해 2승1패 평균자책점 2.60을 기록했다.

올해 샌프란시스코전에는 2경기에 나와 18이닝 동안 1실점으로 호투했다.

샌프란시스코는 8일 현재 55승 87패로 내셔널리그 서부구 최하위다. 사실상 끝까지 팀으로 힘든 팀이다.

/김민근기자

서태지, 25주년 기념공연 '타임:트래블러앙코르' 개최

가수 서태지가 데뷔 25주년 기념 공연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한다.

서태지컴퍼니는 8일 지난 2일 서울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렸던 서태지 25주년 기념 공연에 보내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5주년 기념공연 '타임:트래블러앙코르'(TIME:TRAVELER ENCORE) 공연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앙코르 공연은 잠실주경기장 공연에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던 '난 알아요', '하여가', '껌뻑쑈' 등 서태지의 조창기 히트곡들이 오리지널 사운드와 퍼포먼스로 재현되며, 서태지의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적 스펙트럼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서태지는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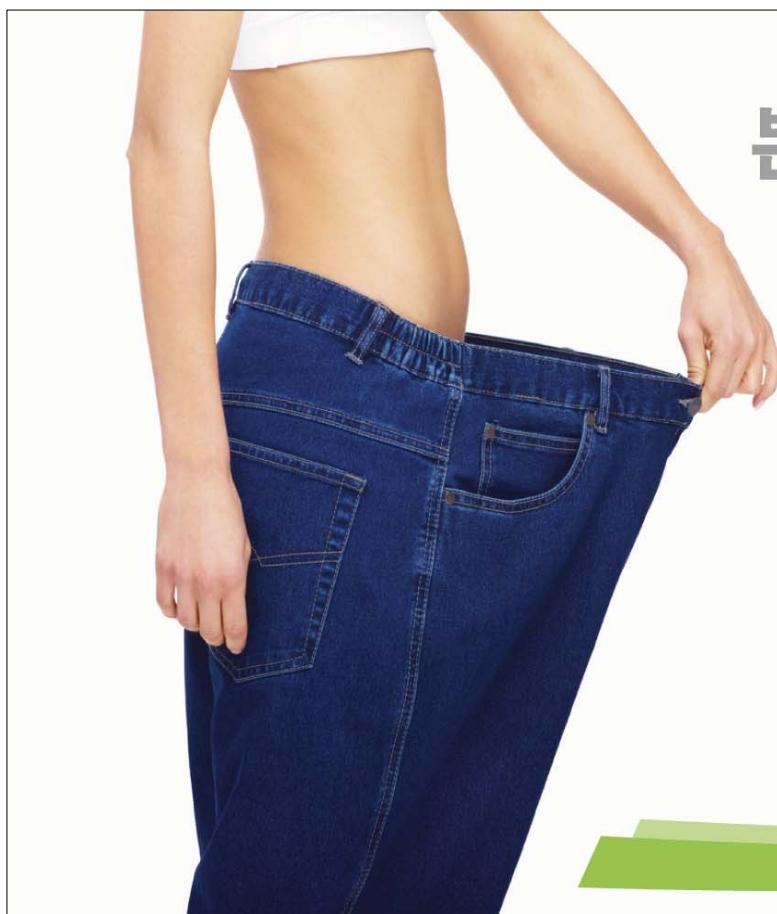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7월과 8월 두 달간 빙탄노년단, 어반자카페, 윤하, 루피&나풀라, 에디킴, 수란, 헤이즈, 크러쉬 등 후배 뮤지션들의 리메이크 음원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또 네이버 V앱 출연 등 팬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태지 측은 "서태지의 25년은 팬들과 함께 한 25년의 역사"라며 "서태지와 팬들의 25년을 기념하는 무대인만큼 서태지 씨와 관객들이 더 가까이서 만나 함께 축하하고 싶어 준비한 공연"이라고 밝혔다.

서태자는 이번 앙코르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 새 앨범 준비를 위해 휴식기를 가질 예정이다.

/뉴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 내년 3월2일 불 밝힌다

성화봉 첫 공개

인간의 무한 잠재력을 통해 전 세계인의 화합을 이끌어 낼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성화가 내년 3월2일 불을 밝힌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평창 패럴림픽 성화봉송 경로와 봉송 주자 선발 계획 등을 발표했다.

패럴림픽 성화봉송은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공식행사다.

내년에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의 성화봉송은 총 8일 간의 여정으로 구성된다.

성화는 2018년 3월2일 대보름 행사가 열리는 국내 5개 권역인 제주도, 인양시, 논산시, 고창군, 청도군을 비롯해 3월3일 패럴림픽의 발상지인 영국 스트로크맨데빌 등 해외 도시와 서울에서 채화된다.

8개 도시에서 채화를 마친 8개의 성화는 3일 1988년 세계 최초 패럴림픽 성화가 간직된 장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최초'의 의미를 담은 합화 행사가 열린다.

해외 도시에서 채화된 성화는 영상으로 합화에 참여한다.

합화식은 열정과 화합의 불꽃이 모이는 '빛의 중심(Center of Shining)'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성화봉송 언론설명회 및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기수 선이 PTR 성화봉송과 유니폼 공개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을 테마로, 전 세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채화지를 포함한 봉송 구간은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2018km이며, 성화는 합화 후 5일 간 강원도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1988년 시작된 패럴림픽 성화봉송의 정신을 전달할 계획이다.

성화 봉송은 '무장이' 실현을 위해 각종 첨단 이동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2018 평창 패럴림픽 성화봉송 주자는 총 800명이며, 동행을 상정하는 2인 1조로 구성돼 봉송된다.

모든 여정을 마친 패럴림픽의 성화는 2018년 3월9일 개회식장 성화대에 접화되고, 3월18일까지 10일 간

펼쳐지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열정의 불꽃으로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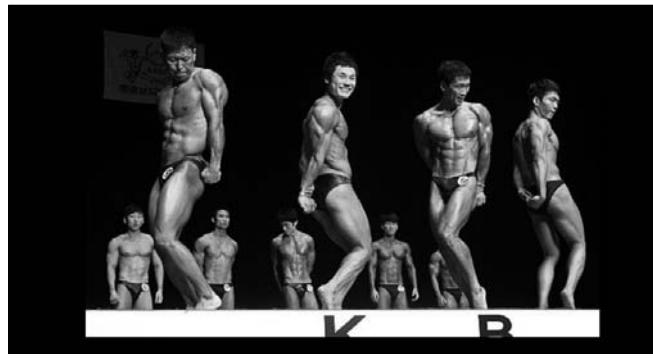
주자 선발은 9월 말부터 조직위와 파트너사에서 각각 모집한다.

각 선발 주체별로 12월까지 심사가 진행되며 2018년 2월까지 패럴림픽 성화봉송 주자를 확정. 봉송 구간 배정 후 개별 통지한다. 성화봉송 주자는 시전교유과 성화봉송 참가는 물론 참가증서도 발급된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 패럴림픽 성화봉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벽을 없애는 화합과 동행의 정을 테마로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의 여정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새만금배 전국보디빌딩 남여 참피언쉽 23일 군산월명실내체육관서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군산월명실 내체육관에서 2017년 제1회 새만금배 전국보디빌딩&뷰티비디 남여 참피언쉽이 열린다.

군산시(통합)보디빌딩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보디빌딩 & 피트니스연맹(IFBB, International Federation of BODYBUILDING AND fitness) 및 사단법인 대한보디빌딩협회(KBBF)경기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본 대회의 심판은 9심제로 국제연맹 심판자격 유효자와 국내 1급 심판자격 유효자로 구성하여 지역적 편파없이 전북지역 심판 외에 타지역 심판들을 초빙하여 공정한 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게 주최측의 계획이다.

대회 종목으로는 9종목 25체급별로 진행하며, 체급을 나이별로 하고, 고등부, 대학부 보디빌딩과 남자일반부 5체급, 마스터즈 3체급(50세~60세 이상)별로 진행한다.

또한 뷰티비디 남자 피지크 3체급에는 키 174cm, 168cm 178cm초과급으로 하며, 남자 스포츠 모델은 3체급으로 하며, 남자 피지크 3체급은 키 174cm 금이하, 178cm 금이하, 178cm금이하, 178cm급 초과로 한다.

따라서 여자 피지크 3체급별로 키

(통합)보디빌딩 협회 순점일 회장은 23일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도내에서 역대 처음으로 큰 대회를 치르는 만큼 남여 선수 300여명이 출전할 것으로 보고, 급격히 늘어나는 보디빌딩 등호인들이 남여노소를 불문하고 전북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약 20여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본 대회장은 동호인을 포함한 관객은 최소한 5000여명이 대회장을 꽉 메울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군산시

/군산=김관근기자